

# 동구청장 재선거, 정치인이나 관료출신이나

### 정치인 5명·관료출신 6명 등 12명 거론 ... 과열양상 지역 정치권 “참신한 정책·공약 실천할 후보 뽑아야”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열기가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번 재선거는 벌써부터 10명이 넘는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보군이 정치인과 전직 관료출신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동구청장 선거의 경우 그동안 모두 관료출신이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번 재선거도 관료출신이 또다시 당선증을 거머쥘지가 관심사다.

동구의 경우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거 실시 이후 광주 5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구와 함께 모두 관료출신이 당선되어 왔기 때문이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 후보는 김영우(전 시의원)·문필갑(전 광주 시교통약자지원센터 본부장)·안재경(전 광주경찰청장)·양혜령(전 시의원)·오형근(성형외과 원장)·윤진보(전 목표부시장)·이선순(동구의회 의장)·임택(시의원)·정중해(전 보성군수)·조용진(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홍기철(동구의원)·홍진태(전 광주시 투자교육국장) 등 12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5명은 정치인, 그리고 6명은 전직 관료다. 의사 출신 1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가 정치인 또는 관료출신인 셈이다.

정치인들은 관료 출신들의 재선거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다. 유태명·노희용 전 구청장이 연이어 낙마하는 바람에 실시되는 재선거에 또다시 관료출신이 출마하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행정 패러다임에 익숙한 관료출신으로는 동구를 바꿔나가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관료출신 측에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기초자치단체장마저 정치인이 입성, 정치논리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특히 동구의 특성상 단체장 2명이 연이어 낙마한 점을 감안하면 조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출신보다 구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인 출신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동구청장은 관료출신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되긴 했지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라며 “이번 재선거는 정치인이나 관료출신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후보가 참신한 내용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 이를 임기 안에 실천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화순 도암 용강리~우치리 4km 개통

### 전남도 설 귀성객 특별대책

화·포장공사 진행중인 지방도 817호선(화순 도암~장흥 유치) 가운데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에서 우치리까지 4.0km 구간이 1일 부분 개통됐다. 또 지방도 803호선인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에서 보전리까지 5.0km 구간도 설 연휴 전 준공 개통된다.

또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섬으로 귀성하는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편을 늘리고, 사전 인터넷 예매를 실시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공사중인 지방도를 부분 또는

준공 개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26개 지구 등 36개 지구에 모두 19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전남도는 이들 공사를 이달 말까지 발주하고 6월 말까지 예산의 60%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소 57개 항로에 79척을 운항하던 전남 연안 여객선을 설 연휴 기간인 2월 5일부터 10일까지 10척 더 늘려(목포권역 4척, 여수권역 5척, 완도권역 1척 증편) 89척을 운항하기로 했다.

배표는 사전 인터넷(<http://island.haewoon.co.kr>) 예매를 이미 시작해 여객터미널에서 표를 사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롤링 주빌리,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MOU

전남도는 1일 오후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주빌리은행)와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빌리은행은 국민들의 성금을 재원으로 생계형 채무자의 부실 악성채권을 매입, 소각하는 빚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은 이날연 전남지사,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향후 양 기관은 생계형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 학자금대출 대학생 등의 ‘빚 탕감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하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총선 청소년도 함께해요 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에서 열린 ‘청소년 취재기자단 발대식’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청소년기자단은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선거운동과 유권자 목소리,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소망원고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지방정가

#### 문태환 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복지위 통과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 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1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의 영향 파악 ▲예방정책 마련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사고발생 사업장 및 지속적 민원 발생 사업장 주변 조사 및 공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안전교육 등 예산지원 등이다.

이반 조례는 지난해 발생한 남양전구수 유출 사건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태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사실상 역할과 권한이 없었던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숨고르던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재시동’

### 에타 앞두고 이달말까지 수정 계획서 제출 계획 사업규모 절반 줄여 애초 사업취지 살릴지 의문

광주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는 보완을 요구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에타) 조사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수정한 계획서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8000억원대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 계획했던 애초 사업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윤장현 시장은 1일 전체 직원회의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해 끈질긴 노력으로 국비(30억원) 일부를 확보했지만, 아직 에타가 끝나지 않은 만큼 한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제출할 수정 계획

서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갖는 정성적(定性的)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합의된 적정임금으로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수정 계획서에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규모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과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강조하는 ‘투톱 체제’로 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100만대 조성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처음에 8347억원에서 4194억원, 다시 3979억원까지 줄어들면서 애초 사업취지의 퇴색도 우려된다.

지난해 기재부는 이 사업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이 통과기준에 못 미친다며 보완요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에서는 정량평가 중심에서 광주형 일자리 갖는 정성적인 부분을 중요 평가요소로 인정해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빛그린산단 등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 정부의 공약이자 윤장현 시장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유정심 “주월초교 공사비 시청 제멋대로 사용”

광주시의회 유정심(남구 2) 의원은 1일 광주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시가 시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주월초교 그린스쿨 리모델링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을 조선대·호남대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개보수 공사비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조선대 체육관 5600만원, 호남대 체육관 2600만원 등 모두 13개 학교의 체육관 및 운동장등을 개보수하며 2억8400만원을 임의로 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월초교는 전임시장이 명품학교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리모델링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도 부족해 협의한 예산마저 다른 학교에 집행한 것은 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밝은'광주안과'의원

#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의원

##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